

소니, 4개 비핵심사업 분사 추진

일본 소니그룹이 전자 등 핵심사업에 주력하기 위해 4개 비주력 사업을 분사할 방침이다.

소니는 현재 이를 위해 투자펀드 등과 지분 매각 협상을 벌이고 있다.

소니가 분사를 추진하는 사업은 수입 소매업체인 소니플라자, 화장품 메이커 B&C레보레이토리즈, 프랑스 식당 체인 맥심드파리, 통신 판매 부문의 소니패밀리클럽이다.

이들 4개사는 모두 소니의 공동 창업주인 아키오 모리타가 설립하고 소니그룹이 전액 출자한 자회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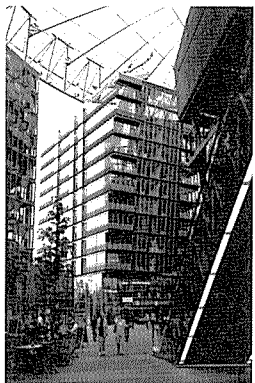
소니는 이들 자회사의 주식 50% 이상을 이달 중 일괄매각할 예정이다.

니혼게이자이, AP 등 외신들은 이번 주식 매각이 성사될 경우 소니가 수백억엔을 벌어들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각 회사는 새 주인을 맞아 소니와 독자노선을 밝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수년간 전자사업의 수익성 악화로 고전해온 소니는 작년 9월 사상 처음으로 외국인인 하워드 스트링거를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로 영입해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해왔다.

스트링거 회장은 전자부문에서 1만명을 해고하고 일부 공장을 폐쇄하며 비핵심분야에서 10억달러 이상의 자산을 매각하는 등의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 민관공동 LCD패널 국산화 추진

중국이 민·관 협력으로 LCD패널 국산화에 나선다. 중국에서는 최근 들어 LCD TV 수요가 급격히 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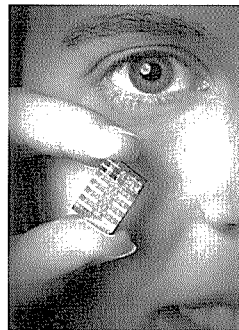
있지만 LCD패널 대부분을 외국업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LCD시장은 현재 한국·일본·타이완업체들이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중국 업체들은 LCD TV 제조비용의 70%를 차지하는 패널을 타이완·일본업체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이때문에 내수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의 실질적인 이익은 적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TV를 차세대 중점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핵심부품 국산화를 서두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상하이에 패널 등 부품공장을 유치해 LCD TV를 일관 생산하는 거점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번 LCD패널 국산화에는 TCL그룹·창웨이(創維)그룹·강자(康佳)그룹·창홍(長虹)전기 등 주요 업체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LCD패널공장 건설을 위해 광둥성 선전시 소재 국영기업 등과 함께 20%씩 출자해 자본금 1000만위안의 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다. 그러나 향후 투자규모나 구체적인 생산계획 등은 밝히지 않았다.

중국국가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LCD TV 판매량은 약 130만대였으며 올해에는 두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해 판매량 가운데 이번 국산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4개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40%에 달한다.

도시바가 유전자해석기인 'DNA 칩'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

도시바는 류마티스·결핵·암 등의 약 효과와 부작용을 진단하는 고성능 칩과 전용 해석장치를 내년 출시한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2월 6일 보도했다.



도시바는 반도체 가공기술 등을 응용해 유전자 양을 전기적으로 검출하는 독자 방식의 칩을 개발했다. 형광 물질을 사용하는 광학식보다 고감도이며 검출 정도도 광학식이 현재 80~90%인데 반해 '거의 100%'로 높은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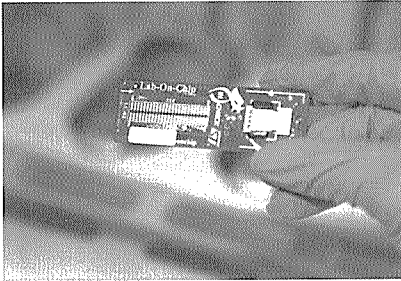
DNA 칩은 주로 연구용으로 사용돼 왔는데 도레이·캐논 등이 진단용 칩 사업 진출을 잇따라 표명한 상태다.

도시바는 이들 기업보다 먼저 제품을 출시해 병원 등에서의 실제 실험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ST마이크로·베레두스 공동, 조류독감 진단 칩 개발 추진

조류독감(AI) 등을 간편하게 진단할 수 있는 칩이 개발된다.

1월 19일 유럽 반도체 회사인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와 싱가포르 베레두스 연구소는 의료기관이 조류 독감 및 기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조기 검출할 수 있는 진단칩 및 기술을 공동 개발한다고 밝혔다. ST마이크로에 따르면 이 진단 기술은 신뢰성 있는 저렴한 장비를 사용하며, 약 1시간 이내의 검사를 거쳐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양측의 공동개발 계획에 따라 베레두스 연구소는 ST마이크로의 특성화된 인체코 (In-Check) 플랫폼(사진)을 사용해 현재 필요할 때마다 여러 차례의 테스트를 하는 대신 한 번의 테스트로 환자가 A(조류 독감; H5N1) 또는 인플루엔자에 감염됐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게 된다.

ST의 인체코 플랫폼으로 구동되는 베레두스의 애플리케이션은 올해 4·4분기부터 헬스케어 제공업체들이 상용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ST측은 밝혔다.

구글, 스카이프 무선 핫스팟회사에 공동투자

스페인의 한 무선벤처회사가 설립 3개월 만에 구글과 스카이프에서 거액을 투자받아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AP통신이 2월 5일 보도했다.



마드리드에 위치한 무선네트워크 공유회사 폰(FON)은 최근 구글과 스카이프, 인덱스 벤처, 세콰이어 캐피털로부터 총 2170만 달러를 유치했다고 발표했다.

폰의 사업모델은 와이파이 접속이 가능한 핫스팟을 서로 공유하는 대신 일정한 비용을 거둔다는 것이다.

최근 ISP마다 핫스팟을 경쟁적으로 늘리

면서도 대부분 타사 고객의 접속은 금하고 있어 막대한 설비투자가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폰은 자신의 핫스팟을 무료 또는 유료로 다른 회원들과 공유하게 만드는 두 가지 옵션을 제공한다.

회사측은 초기 넷스터가 음악파일을 공유하면서 음반시장에 변혁을 가져왔듯이 핫스팟도 회원끼리 공유하는 트렌드가 확산됨에 따라 무선인터넷 시장을 크게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소프트뱅크, 휴대이동방송 진출 추진

소프트뱅크 올 봄 이동통신 서비스에 나서

는 소프트뱅크가 '휴대이동방송사업' 진출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월 1일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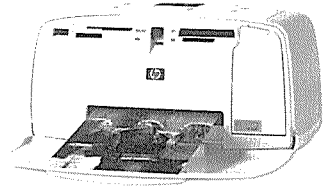
보도에 따르면 소프트뱅크는 내년엔 휴대이동방송 면허를 신청, 주파수를 취득하면 본격적인 시험 방송에 착수하고 오는 2012년에는 전국 규모의 서비스에 나설 계획이다.

소프트뱅크가 휴대이동방송서비스에 나설 경우 이동통신사업자로서는 첫 진출이 되며 통신·방송 융합을 통한 종합 미디어 그룹으로 도약하려는 소프트뱅크의 급부상까지 점쳐지고 있다.

소프트뱅크는 자사 휴대폰에 전용 수신장치를 내장해 방송서비스에 나설 계획이다. 드라마, 스포츠, 뉴스 등의 콘텐츠 방영권을 독자적으로 취득해 최대 16개 채널로 제공한다. 수익원은 무료 방송에 광고를 넣거나 일부 콘텐츠를 유료화해 확

보한다.

HP "델과 경쟁위해 직판 개선"



HP가 향후 18개월 동안 기존의 하드웨어 직접판매방식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계획이다. 또 보안·스토리지·블레이드 서버를 지원하는 이른바 '인프라SW' 업체들의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C넷은 1월 23일 HP 내부 소식통을 인용, 2주 전 미국 캘리포니아주 인디언 웰스 소재 에스메랄다 리조트 & 스파에서 열린 연례 경영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들을 골자로 하는 단기 전략회의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따르면 마크 허드 HP CEO와 이사진 및 수석 경영진들은 며칠 동안 계속된 회의에서 특히 '델과 경쟁하기 위해' 직접판매 모델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끈다. 또한 '테크놀로지 시스템그룹의 성장을 위해' 인프라SW 기업 인수를 지속할 것임도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HP는 자사 서버 제품군에 인텔 칩 대신 AMD의 칩을 더 많이 채택할 전망이다. 이 소식통은 "우리는 AMD의 옴레론 칩을 더 많이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P는 아이테니엄 칩 개발을 위해 인텔과 오랫동안 협력했지만 인텔의 제품 출시 지연에 불만을 가져왔다. 또 이미징 & 프린팅 그룹은 공업용 프린터를 개발하는 장기 계획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